

판공성사란

판공(辦功)성사란 말은 한자의 뜻 그대로 힘써 노력하여 공로를 갖춘 다음에 받는 성사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 공로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교리찰고(敎理擦考)가 따른다. 교회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교회법 제 920호). 그리고 그 시기도 부활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성탄시기와 부활시기에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년에 두 번 실시하게 된다. 한국교회 당국자들은 신자들이 성탄과 부활에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하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영신사정에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목 지침서).

전통에 의하면 판공성사를 받기 전 교리시험(이것을 擦考라 했음)을 거쳐서 성사표를 받은 다음 고백소에서 성사표를 신부에게 내밀고 성사를 받는다. 교리시험이 따르는 성사이기 때문에 판공성사라고 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는 4규(四規)성사라고도 한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교회법 중 특별히 정한 (1) 주일을 거룩히 지낼 것 (2) 단식, 금육재를 지킬 것 (3) 1년에 적어도 한번은 고백성사를 받을 것 (4) 1년에 적어도 영성체를 한번은 할 것 등의 네 가지 규정에 의한 성사라는 뜻에서 4규 성사라고도 한다.

특히 지금은 대개 고해성사를 보는 것으로 판공을 마치게 되지만 예전에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본당 사제가 신자들 가정의기도 생활, 교회 생활, 가정 형편 등 해당 가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의 기도생활, 성서나 교리 지식, 전례 등의 습득 정도를 알아보고 평가해 고해성사를 주었으며 이를 판공이라고 불려온 것이다.

판공성사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재판을 하는 시기이므로 그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또 교적은 정리가 잘 됐는가? 살펴보고 교무금 정리도 하고 교적도 정리하는 것으로써도 꼭 판공이 필요하다. .

판공성사를 할 때 성사 표를 사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신앙생활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즉 교회가 신자들을 감시하고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써 마련한 것이다. 판공성사는 원칙적으로 부활절에 적용되며, 성사를 받았다는 확인이 교적에 기록된다. 행정법적으로 3년간 판공성사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소위 냉담자(쉬는 교우)로 분류가 된다. 그런데 다른 성사는 [받는다]고 하는데 고백성사만은 [고백성사 보았어]하는 식으로 성사를 본다는 말을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초창기 박해 때 고백성사를 받는 암호를 신자들 사이에 [자네 일 보았나?]한 데서 오늘날까지 고백성사는 본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타 본당에서 판공성사를 보거나 고해성사를 본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히 고백해야 할 것이 없을 경우에도 교적상의 기록을 위해서 본당 사제에게 이야기하고 성사 표를 제출하는 성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종종 적지 않은 신자들이 고해성사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고해성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성당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목적 배려로 개별고해가 아닌 공동참회 예식을 통한 일괄 사죄의 기회를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반드시 고백과 사죄가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다만 피치 못할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해성사는 성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사의 하나이다.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고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간 조건을 배려한 하느님의 용서와 화해의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해성사의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주,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적어도 신자의 의무로 규정된 판공성사만은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잘 나가던 시절>

축구시합 때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 선수, 그라운드에 적응도 되어 시원한 골도 넣고 기가 살아 펄펄 나는 선수를 감독이 교체하겠다면 참으로 억울할 것입니다.

벤치로 돌아오는 선수는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아이들 표현대로 꼭지가 돌아버릴 것이며, 괜히 애꿎은 쓰레기통이나 물통만 밟길질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무렵, 세례자 요한의 인생은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한 몸 에 받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적극 추종하는 유능한 제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고, 수많은 추종자들의 수효는 언제라도 정치 세력화할 수 있을 정도였기에 영주 헤로데 마저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잘 나가던 시절, 꺾발 줄던 시절, 메시아께서 도래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물려 나아할 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즉시 오랜 기간 공들여 갈고 닦은 자신의 지역구를 한 치의 미련도 없이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의 겸손이 참으로 돋보입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가장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 소나기 골을 마구 터트릴 수 있는 절정기의 순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멤버체인지가 됩니다. 일말의 아쉬움이나 아무런 미련도 없이 말입니다.

때가 왔음을 알게 된 세례자 요한은 망설이는 법이 없습니다. 확실하게도 뒤로 물러섭니다.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뜨도록, 주님께서 활짝 꽃피어나도록

철저하게도 자신을 낮춥니다.

세례자 요한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매일 나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매일 나 자신이 죽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사라지고 죽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현존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점점 성장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후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12월 6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61.50
교 무 금 ： \$ 100.00 259(100)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265.00 188(20) 194(20) 196(20) 199(20) 205(20) 214(10) 219(5) 224(50) 226(100)
성모님동산 (누계): 금주\$215 (\$5505.00)
합 계 ： \$ 1126.50

본 당 소 식

◎ 판공성사 및 미사 안내

▶13일(대림 제 3주일)- 미사집전 및 판공성사: 고원일 안드레아 신부님

미사 전, 미사 중, 미사 후 판공성사:

조원행 안드레아 신부님

(따라서, 판공성사는 이번 한 주일로 마칩니다)

▶20일(대림 제 4주일)- 미사집전: 토론토 한맘 성당 백종현 바오로 신부님(유학)

▶저희 공동체에 본당 주임사제가 공석인 관계로 이번 성탄전야 및 성탄절 미사는 자체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되도록이면 현지성당인 St. Anthony Daniel Parish 미사에 저희 공동체가 단체로 참례해 주시길 바라며 개인 사정으로 어려우신 교우분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성당이나 해밀턴 한인성당 미사에 참례하셔도 됩니다. 모쪼록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안토니다니엘성당 미사 시간 안내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오후 10:00

12월 25일 성탄미사 오전 8:30 / 10:30

12월 31일 새해 전야 미사 오후 5:00

1월 1일 새해 미사 오전 8:30 / 10:30

◎ 전례 봉사자 명단 작성 안내

각 구역장님께서서는 전례희망자를 모집하시어 전례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2010년 매일미사책 구입 안내

▶비용 ; 1년치 \$48.00

▶신청 ; 박재영 선교부장

▶마감 ; 12월 13일

◎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장크리스티나 자매님의 개인 사정으로 성가대 반주를 맡아주실 교우를 찾습니다. (0 명)

▶문의 : 성가대 단장 / 지휘자

◎ 바뇌의 성모 기도회 모임 안내

▶일시 : 12월 18일 (금) 오후 7시

▶장소 : 교육관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순대 판매합니다. 예약은 이 은희 이베타 자매에게 해주세요 (\$8.50/개)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그 물음은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 중요한 자각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 놓음이다. 내려 놓음은 일의 결과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신의 순수 존재에 이르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내려 놓지 못할 때 마무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윤회와 반복의 여지를 남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한다. 맑은 가난과 간소함으로 자신을 정신적 궁핍으로부터 바로 세우고 소유의 비좁은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또한 단순해 지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줄 안다. 불필요한 것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진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나 떠날 채비를 갖춘다. 그 어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산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많은 우주의 선물도 그저 감사히 받아 쓸 뿐, 언제나 빈손으로 두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좋은 글 중에서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09-50호

2009. 12. 13.

대림 제 3 주일

(자선 주일)

해설 이정숙

차주 해설 고영호

성 가

입 당 (89) 주 하느님 자비로이

봉 헌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성 체 (156) 한 말씀만 하소서

퇴 장 (93) 임하소서 임마누엘

화 답 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독 서			
12월 13일	최우석	최연옥	
12월 20일	김동규	김은옥	

봉 헌			
12월 13일	신상우	신계연	
12월 20일	최우석	최연옥	

복 사			
12월 13일	구한힘	이수민	
12월 20일	류지흥	호 동	

친 교			
12월 13일	성모회와 브랜포드 구역		
12월 20일	성모회와 캄브리지 구역		